

사크게절 홈페이지 [www.sakyejul.net](http://www.sakyejul.net)

블로그 [blog.naver.com/skjmail](http://blog.naver.com/skjmail) 페이스북 [facebook.com/sakyejul](https://facebook.com/sakyejul)

트위터 [twitter.com/sakyejul](https://twitter.com/sakyejul)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akyejul\\_teen](https://instagram.com/sakyejul_teen)



조지 오웰

원작

피도 네스티  
지미

강동현  
옮김

영승  
해설

1984

가이드북

사크게절



## 목차

|                             |    |
|-----------------------------|----|
| 조지 오웰 소개                    | 2  |
| 『1984』 사회 계급도               | 4  |
| 국어 교사가 바라본 『1984』 & 독서 후 질문 | 6  |
| 역사 교사가 바라본 『1984』 & 독서 후 질문 | 10 |
| 함께 읽으면 좋은 고전                | 14 |







## 조지 오웰

George Orwell 1903-1950

조지 오웰은 영미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작가이다. 그가 첫 책을 낸 뒤로도 반 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조지 오웰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본명 에릭 아서 블레어를 지우고, 영국에서 흔하게 쓰이는 이름 중 하나인 ‘조지’와 부모님 댁 근처에 위치한 ‘오웰’ 강에서 따와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영국령 인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아버지를 둔 그는 인도 벵골에서 태어났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뛰어난 재능 덕에 학비를 면제받아 상류 계급만이 다니는 이튼 칼리지에 진학했다. 그러나 상류층의 심한 차별과 감당할 수 없는 학비에 염세를 느낀 조지 오웰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인도 제국 경찰 시험에 응시했다. 아버지가 근무하였던 인도, 버마(오늘날 미얀마) 등 아시아에서 근무를 이어 온 그는 약 오 년의 시간 동안 성실히 경찰로 일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영국인들의 위선적인 제국주의에 환멸을 느꼈다.

결국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경찰을 그만두고, 파리 빈민가와 런던 부랑자들이 기거하는 거리들을 전전하며 하층민의 밑바닥 생활을 몸소 경험했다. 여러 잡지에 글을 써 오던 그는 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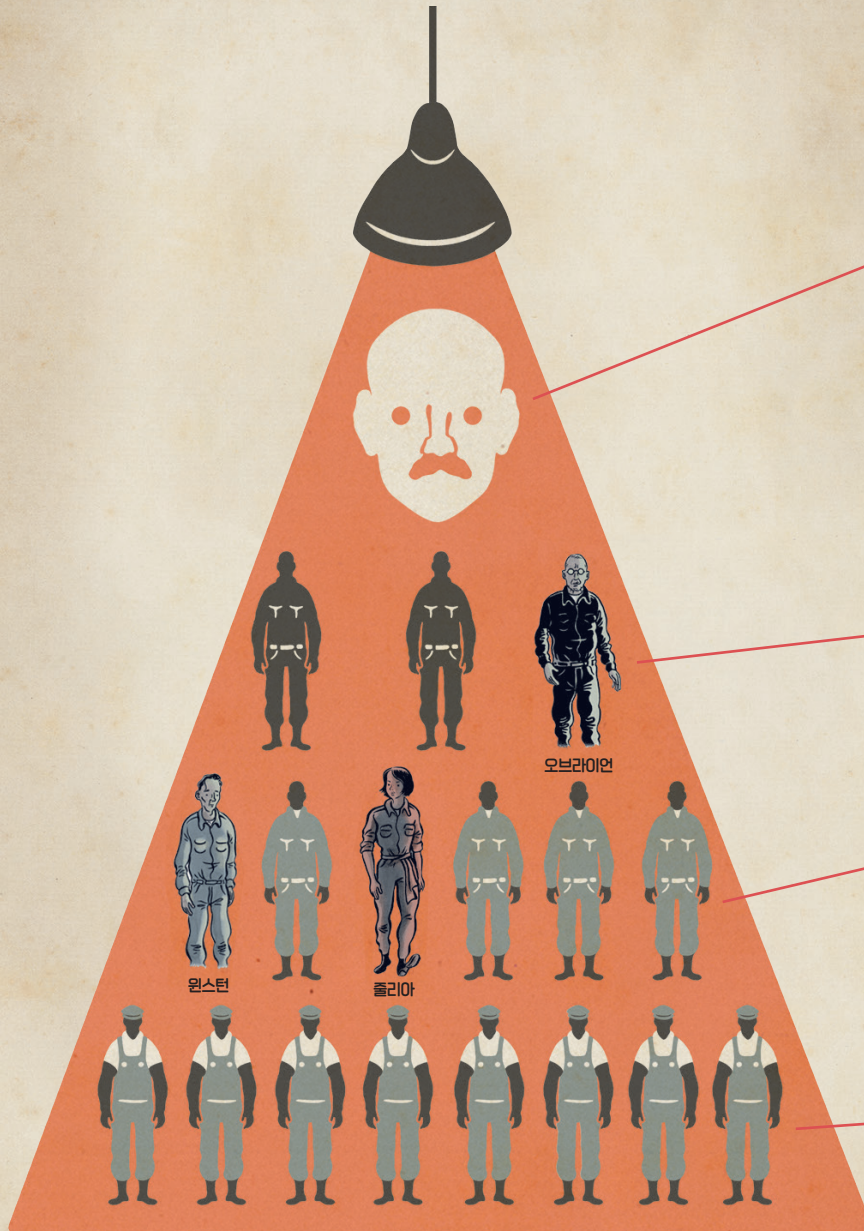
년 후, 필명 조지 오웰로 첫 작품 『파리와 런던 거리의 성자들』을 발표했다. 실제의 사건, 현장을 기록하는 ‘르포르타주’ 형식인 이 작품을 시작으로 그는 미얀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영국 제국주의를 고발하는 소설 『버마 시절』도 연달아 써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내전 발발 당시,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 스페인군으로 참전하였다. 그러나 심한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스페인 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오명을 쓰고 배신자 신세가 되어 스페인에서 쫓기듯 달아나게 된다. 이후 스페인 공산당의 악행을 낱알이 파헤치는 역설적인 제목의 작품 『카탈로니아 찬가』를 써냈다.

이렇듯 조지 오웰은 본인이 실제 경험한 사회적 문제에서 착안한 글을 쓰며 정치 성향이 짙게 묻은 작가로 자리매김했으나, 빈민 생활 및 전쟁 참여 등 잇따른 악조건에 결핵 증세가 심해져 모로코에서 요양 생활을 하며 잠시 글쓰기와 멀어졌다. 이후 영국 BBC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신문사에서 문학과 정치 칼럼 편집장으로 일을 하던 중, 그는 스탈린을 소설 속 돼지 나폴레옹에 빗대어 유토피아를 꿈꾸는 권력 계급의 몰락에 대해 풍자하는 소설 『동물 농장』을 쓰기 시작했다. 『동물 농장』이 큰 성공을 거두며 주요 작가로 급부상한 오웰은 아내와 사별한 슬픔과 오랜 지병인 결핵의 악화라는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글쓰기를 강행, 마침내 디스토피아 문학의 걸작인 『1984』를 써냈다.

『1984』가 출간된 1949년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에 반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때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폐허와도 같은 전체주의 사회를 소설에 담아내 오웰은 반사회주의 작가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며 이 작품은 반사회주의 소설이 아닌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경고라고 하였다. 거기에 더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1984』가 현실이 되리라고 말한 조지 오웰은, 부패한 사회주의가 가져올 디스토피아에 경종을 울릴 뿐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동물 농장』에 이어 『1984』로 작가로서의 명성을 이어 간 조지 오웰은 1950년 결핵으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 『1984』 사회 계급도



### 빅 브라더: 권력 피라미드의 정점

빅 브라더는 전능하며 절대 틀리지 않는다. 모든 성공과 성취, 승리, 과학적 발견, 지식, 행복은 빅 브라더의 지도력과 영감에서 직접 유래했다고 여겨진다.

빅 브라더를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게시판에 그려진 얼굴,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동전, 우표, 포스터, 담배 포장지..... 빅 브라더의 눈은 사방에 있다. 그 눈이 늘 사람을 감시하고, 그 목소리가 사람을 돌려싼다.

### 당원

당원은 사적 감정이 전혀 없어야 하며, 올바른 의견만이 아니라 올바른 본능을 가져야 한다. 외국의 적과 국내 배신자에게 광적인 증오심을 품고, 승리에 의기양양해야 한다. 당원은 평생 사상경찰의 감시를 받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조사 대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조사받을 수 있다. 어떤 일에도 선택의 자유가 없다.

내부 당원과 외부 당원으로 나뉜다.

### 내부 당원: 국가의 두뇌(오브라이언 등)

600만 명 정도로 오세아니아 인구의 채 2%도 되지 않는다. 커다란 집, 진짜 설탕과 와인, 커피, 차 등 사치품을 받은 덕분에 무산자는 물론 외부 당원과도 다른 세상에 산다.

### 외부 당원: 국가의 손(원스턴, 줄리아 등)

내부 당원 아래에 있다. 내부 당원보다는 못하지만, 무산자에 비하면 비슷한 이점을 누린다. 낡은 맨션, 시카린, 합성 진, 검은딸기 잎사귀 등을 보급품으로 받아 생활한다.

### 무산자: 극빈층 대중

인구의 약 85%지만 무산자는 당의 관심 밖에 있다. 당은 당원들에게 무산자는 열등하게 타고난 존재, 몇 가지 단순한 규칙을 적용해 동물처럼 복종하게 만들어야 하는 존재라고 가르친다. 일하고 자식을 낳기만 하면 그들의 다른 활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원스턴은 '희망이 있다면 무산자에게 있다'고 말한다. 오직 무산자에게만 당을 파괴하고 세계를 전복할 힘이 있다고 믿는다.



국어 교사가 바라본 『1984』

## 『1984』에 담긴 자유, 존엄 그리고 언어

조인혜(능곡고등학교 교사)

이 그래픽 노블의 원작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로 나뉘어 지배되는 세계를 배경으로, 그중 오세아니아에서 역사와 기록을 조작하는 기록청(진리부)의 당원 윈스턴 스미스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 오세아니아는 빅 브라더라는 독재자를 내세운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당원들과 시민들의 삶은 폐허 속의 빈곤한 모습을 보인다. 최첨단 장비와 기술이 있지만, 이는 전쟁과 개인 감시를 통한 체제 유지를 위해 이용될 뿐이다. 이러한 작품 속 배경은 디스토피아를 연상하게 한다. ‘유토피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면,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로 현존하는 사회보다 더 나쁘다고 느끼게끔 형상화된,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디스토피아 문학으로 불리는 『1984』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1984』 속에 드러나는 디스토피아의 모습들은 현재 우리가 읽으면서도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국가나 거대 권력은 물론이고, 온라인상에서 특정 커뮤니티가 하나의 집단이 되어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용인하지 못하고 제재를 가하는 모습, SNS나 온라인 사이트 이용 내역을 통해 수집된 개인의 수많은 정보가 또다시 그 개인들의 소비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등은 우리 현실의 이야기다. 이는 마치 『1984』에 나타난 거대 집단의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는 은유가 현실의 반영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소설을 읽으면서 떠올리게 되는 현실의 모습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미래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끔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작품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윈스턴의 선택과 행동들을 살펴볼 수 있다.

윈스턴은 체제에 저항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일기’를 쓴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말살하려는 체제의 감시 아래에서 글을 쓰는 행위는 그가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 윈스턴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애초에 뭘 말하려고 했는지조차 잊은 기분”이었지만 꾸준히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언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일기를 쓰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이다. 그가 일기장에 썼던 “자유란 2 더하기 2가 4라고 말할 자유다. 그것만 보장되면 나머지는 절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체제에 대한 개인의 저항으로써 일기 쓰기는 개인의 ‘언어’를 지키려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 책에서 다루는 새언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 책은 1~3부, 그리고 부록 ‘새언어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윈스턴의 인간성이 체제에 의해 말살되어 죽음에 이르는 3부가 아니라 ‘새언어의 원리’로 끝나며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독자들에게 던져 주고 있다는 점은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새언어의 원리’를 읽다 보면, 우리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언어가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윈스턴이 몇 번이나 당이 당원에게 했던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라고 언급한 감정의 말살은 언어의 삭제와 축소를 통해 가능했다. 또한 당은 체제가 원하는 생각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만 남겨 놓음으로써 개인의 이성과 감정은 사라지고 체제에 대한 사상만이 존재하고 표현될 수 있게 만들었다. 더불어 개인 간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시도는 늘 문학과 함께한다. 그런 의미에서 창작청에서 근무했던 줄리아에게 당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설이 작품이 아니라 생산해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존엄한 인간성을 보존하는 삶을 위한 언어와 문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 작품은 작가인 조지 오웰도 이야기했듯이 특정 국가 체제만을 한정하여 비판하려는 소설이 아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 자유와 개성을 말살하려는 모든 거대 집단과 권력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을 잘 담아낸 『1984』가 그래픽 노블로 창작되어, 소설로 읽을

때 소화하기 어려운 문장이나 작가의 의도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래픽 노블의 그림은 단순히 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인물의 시선, 표정, 말풍선의 모양, 그림 칸의 크기 등 시각화된 요소들을 통해 재탄생한 새로운 창작물이다. 기존의 원작 소설에 도전하기 어려웠던 이들에게도, 혹은 이미 원작을 깊이 이해한 이들에게도 그래픽 노블 『1984』는 매우 매력 있고 의미 있는 작품이 되리라 생각한다. 진심을 다해 추천하고 싶다.

#### 조인혜

세상이 좀 더 많은 존재들에게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은 국어 교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 교육 분과 물꼬방에서 활동하며, 사계절 출판사의 청소년문학 콘텐츠 ‘호호책방’과 중학 독서평설의 ‘소설을 읽는 시선’에 참여하고 있다.



### 국어 교사가 전하는 『1984』 독서 후 질문

- ① 윈스턴은 어떤 인물인가? 윈스턴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며,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② 작품의 제목 ‘1984’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작품 속 세계는 디스토피아인가?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가?
- ③ 오세아니아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가?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 ④ 그렇다면 지금 여기의 세계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⑤ 내가 윈스턴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⑥ 윈스턴이 상실하지 않기 위해 지키고자 노력했던 인간성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인간성을 구성하는가?
- ⑦ 윈스턴의 일기, 줄리아와의 사랑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⑧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작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역사 교사가 바라본 『1984』

### 『1984』로 본 현재와 미래

권은재(풍생고등학교 교사)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생활하는 곳곳에 이러한 경고 문구가 붙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는 조지 오웰의 마지막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의 이야기이다.

『1984』에서 정부는 허구 인물인 빅 브라더를 당의 지도자로 내세워 독재 권력을 강화한다. 조지 오웰은 당을 중심으로 개인 사생활 감시 카메라인 텔레스크린과 사상경찰을 이용해 당원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하는 미래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행동뿐 아니라 사상까지 통제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텔레스크린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반역자 골드스타인을 내세워 과거를 날조하고, 단순화된 언어 체계를 만들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왜’라는 질문마저 없애 버린다.

자,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고, 표정에 슬슬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췌기를 박는 한마디, ‘너희들 손안에 빅 브라더가 있다!’

‘디지털 빅 브라더’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정보가 빅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신같이 알고 추천한다. 누구보다 관심사를 잘 알아주는 친절한 녀석이다.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빅 브라더의 목적을 잘 파악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1984』의 결말은 처참하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당의 통제에 반발을 느끼지만, 겉으로 표

현할 수 없다. 다만 일기를 쓰고 줄리아와 몰래 사랑을 나눈다. 빅 브라더가 본능적인 욕망까지도 통제하는 철저한 감시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윈스턴은 곧 적발된다. 이미 윈스턴과 줄리아의 투쟁을 감시하고 있었던 내부 당원 오브라이언, 사상경찰 채링턴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윈스턴은 호된 고문에도 끝까지 빅 브라더에게 저항하지만 끔찍하게 싫어하는 쥐 앞에서 줄리아를 부정함으로써 인간성을 말살당한다.

조지 오웰은 “윈스턴은 빅 브라더를 사랑했다.”는 말로 소설을 마무리함으로써 당의 목적은 당원의 육체는 물론 정신 자체를 지배하는 것, 외압에 의한 일시적인 복종이 아닌 세뇌에 의한 영원한 순종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 앞에서 자유를 외치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보여 주는 씁쓸한 결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지 오웰은 디스토피아를 보여 줌으로써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에게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은 아닐까?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9초에 한 번꼴로 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자는 시간만 빼고 CCTV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스마트폰 지도 앱 타임라인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어디를 이동했는지 친절하게도 날짜별, 요일별, 시간별 통계로 보여 줘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빅 브라더가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도입된 전자 출입 명부, 안면 인식 기기, 위치 추적 앱 등이 초감시 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겼다고 주장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대표적인 디지털 빅 브라더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수집한 빅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에 의해 우리의 선택은 감시당하고, 평가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다.

『1984』로 독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 대다수는 미래 사회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지 오웰이 바라본 미래의 모습이 그만큼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 부합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한편 심리학자를 꿈꾸는 한 아이는 모두가 CCTV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이런 주장을 하였다. 오늘날의 CCTV가 텔레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심리적

긍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할까?’부터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할까?’라는 질문까지 답은 사람들의 시선에 있다는 것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날 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나아가 선행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감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범죄 행위 또는 일탈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CCTV뿐 아니라 움직이는 CCTV인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범죄 검거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에는 없는 것이 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있지만 ‘왜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없다. 바로 ‘왜’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유토피아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디지털 빅 브라더가 보여 주는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할 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권은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역사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역사 교사. 평생고등학교 역사 교사이자 교수학습공학 박사이다. 경기도중등역사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2』, 『영화와 함께하는 세계사』를 함께 썼다.



### 역사 교사가 전하는 『1984』 독서 후 질문

- ① 빅 브라더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 ② 사람들은 왜 빅 브라더에게 자유를 구속받게 되었는가?
- ③ 우리 생활 속 텔레스크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④ 오늘날 우리는 텔레스크린의 감시에서 자유로운가?
- ⑤ 우리의 언어와 사고는 어떻게 조작되고 변형될 수 있는가?
- ⑥ 우리는 자유롭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 ⑦ 국가 존속이 중요한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가?
- ⑧ 궁극적으로 빅 브라더에게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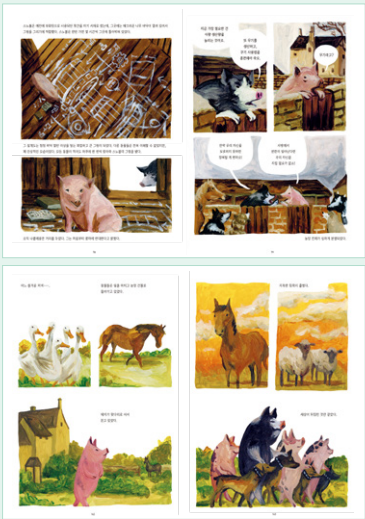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고전



## 동물 농장

조지 오웰 원작 | 오위르 지음 | 강동혁 옮김 | 염승숙 해설

#전체주의 #혁명 #비판적사고 #평등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풍자 우화의 바이블을 그래픽 노블로 새롭게 만나다!

존스의 매너 농장에서 착취를 당해 온 동물들은 인간의 개입 없는 세상을 꿈꾸며 혁명을 일으킨다. 존스를 몰아내고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 사회 ‘동물 농장’을 세우지만 그것도 잠시, 돼지 무리는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잡고 인간보다 더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독재 체제를 따라갈 뿐인데……. 전체주의의 타락, 독재 앞에서 무너지는 자유, 무지와 나태가 불러일으키는 비참한 현실을 바탕으로 써낸 희대의 명작.



## 데미안—에밀 싱클레어의 젊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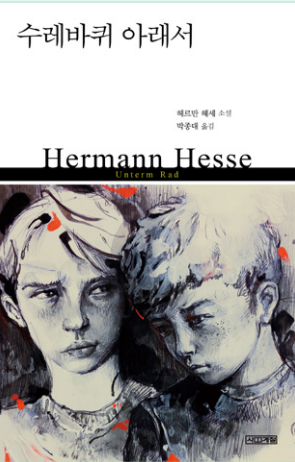
헤르만 헤세 소설 | 박종대 옮김

#내면 #성장통 #자아 #선과악

우리는 모두 ‘데미안’이라는 일기장을 가진 적이 있다!

헤르만 헤세가 들려주는 차갑고도 뜨거운 당신 이야기

‘성장소설의 바이블’로 불리며 전 세계 젊은이들의 통과 의례처럼 읽혀 온 명작.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만남을 통해, 한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알을 깨고 나와 성숙한 존재로 성장해 가는 지난하고 고독한 여정을 그렸다. 안전한 궤도의 삶과 스스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싱클레어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세계와 체제의 위선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저항하며 자아의 완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소설 | 박종대 옮김

#억압 #자기발견 #글레 #성장

인생의 수레바퀴에 깔려 힘들어하는 이에게!

헤르만 헤세가 그려 낸 ‘한스 기벤라트’는

백 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많다.

헤르만 헤세의 초기 작품으로 『데미안』에서 보여 준 철학적 아포리즘과는 달리 작가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진솔한 일기 같은 작품. 19세기 말 독일의 교육 현실을 토대로 인간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의지를 짓밟는 교육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 소설은 아이의 삶이라는 수레에 너무 많은 기대와 욕망을 투사하고 그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지 말고 남들보다 앞서 끌고 나가라고 등 떠미는 사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 청소년문학, 그 멋짐에 대하여

현직 국어 교사이자 열렬한 독자인

김영희, 윤재오, 조인혜 선생님이 청소년문학을

알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청소년문학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호호책방!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찾아옵니다.

청소년문학의 멋짐을 나누는 호호책방으로 놀러 오세요!



호호책방  
『동물 농장』 편 보기

(그래픽 노블)

(ㅋㅋㅋㅋㅋ)

(연기로 재탄생?)

호호책방 『동물 농장』  
그래픽 노블로 재탄생!

동물 농장